

<2014.10.29.~2014.10.31.>

전북도민일보

2014년 10월 30일 (목)
지역 08면

“체류형 관광 콘텐츠개발 전략적 추진”

고창군, 민선6기 출범 100일 농업·관광·환경분야 정책포럼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민선 6기 출범 100일을 즈음해 28일 동리국악당에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농업·관광·환경분야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주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고창발전을 위한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환경분야 발전방향을 제안한 전북대 김창환 교수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결과를 설명하며 “숨겨진 자원의 잠재력 및 본능적 매력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분야 전략에 대해 설명에 나선 이우환경디자인(주) 진승범 대표는 “생태관광 원칙에 충실한 전략 수립

및 브랜드화, 친환경 생태관광 인증 추진, 고창만의 관광스토리 발굴,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강조하며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농업분야에선 전북대 장동헌 교수와 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이 BR(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용 방안과 농업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고창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장동헌 교수는 해외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BR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주민주도로 추진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연구위원은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재분배 되는 순환경제구조 구축”을 강조했다.

박우정 군수는 “오늘 토론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희망과 행복의 고창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며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군 건설을 위해 군민과 행정이 손잡고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고창=남궁경중 기자

106 X 144 mm



고창군은 28일 동리국악당에서 '농업, 관광, 환경'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열었다.

“누구가 살고 싶은 고창 만들 것”

농업-관광-환경 분야발전 전략 정책포럼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28일 동리국악당에서 민선 6기 출범 100 일에 즈음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의 비전 달성을 위해 '농업, 관광,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열었다.

이날 환경 분야의 김창환 교수는 고창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전략, 생물다양성 향상전략 성과를 설명했다. 고창군이 생태계 서비스의 활용평가를 통해 숨겨진 자원의 잠재력 및 본능적 매력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 고부가가치허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환경디자인 진승범 대표는 고창생태관광 발전전략을 위해 생태관광 원칙 충실과 브랜드화 및 특화전

략, 친환경 생태관광 인증 추진, 고창만의 관광스토리 발굴,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농업분야는 전북대학교 장동헌 교수와 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이 BR(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용방안과 농업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고창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장동헌 교수는 해외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BR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주민주도로 추진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연구위원은 지역주민이 함께 연계하고 연대해 계열화 및 하청화 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하며 각 품목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가치 창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고창군은 지난 28일 동리국악당에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의 비전 달성을 위해 '농업, 관광,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했다.

고창, 민선6기 100일 전략 정책포럼

농업·관광·환경 분야 전문가 초청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28일 동리국악당에서 민선 6기 출범 100일에 즈음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의 비전 달성을 위해 '농업, 관광,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환경 분야의 김창환 교수는 고창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전략, 생물다양성 향상전략, 생태계서비스 활용전략,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자연이 인간에게 돌려주는 혜택으로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고창군이 생태계 서비스의 활용평가를 통해 숨겨진 자원의 잠재력 및 본능적 매력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 고부가가

치 창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환경디자인(주) 진승범 대표는 고창생태관광 발전전략을 위해 생태관광 원칙 충실과 브랜드화 및 특화전략, 친환경 생태관광 인증 추진, 고창만의 관광스토리 발굴,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농업분야는 전북대학교 장동헌 교수와 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이 BR(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용방안과 농업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고창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장동헌 교수는 해외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BR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주민주도로 추진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고창=박용관 기자(sco0747@)

고창군, 농업·관광·환경분야 발전전략 정책포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이용한 경제 활성화 등 발표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28일 동리국악당에서 민선 6기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의 비전 달성을 위해 '농업, 관광,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환경 분야의 김창환 교수는 고창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전략, 생물다양성 향상전략, 생태계서비스 활용전략,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자연이 인간에게 돌려주는 혜택으로서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고창군이 생

태계 서비스의 활용평가를 통해 숨겨진 자원의 잠재력 및 본능적 매력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환경디자인(주) 진승범 대표는 고창생태관광 발전전략을 위해 생태관광 원칙 충실과 브랜드화 및 특화전략, 친환경 생태관광 인증 추진, 고창만의 관광스토리 발굴,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농업분야는 전북대학교 장동헌 교수와 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이 BR(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용방

안과 농업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고창 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장동헌 교수는 해외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BR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주민주도로 추진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연구위원은 주민이 함께 연계하고 연대해 계열화 및 하청화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가야 하며 각 품목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가치 창출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화·규모화, 마케팅, 경영능력 향상 인적자원 관리, R&D 등 지원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산면 장연희씨는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수립을 건의하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168 X 94 mm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생물종 최대 64% 증가

연말뉴스 | 기사입력 2014-10-29 12:00 | 최종수정 2014-10-29 12:34



고창 운곡습지(연합뉴스 자료사진)

5곳 정밀조사결과 893종 추가 발견..."생물다양성 보전효과 뚜렷"

(세종=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 습지보호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 수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최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창 운곡습지, 제주 물영아리오름, 제주 1100고지습지, 경남 화염늪, 신안 장도산지습지 등 5곳을 대상으로 '2013년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생물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창 운곡습지로 86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 물영아리오름에 706종, 제주 1100고지에 695종, 경남 화염늪에 418종, 신안 장도산지습지에 355종이 각각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5개 습지 중 4개 습지에서 893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고창 운곡습지는 서식 종수 증가율이 63.9%로 가장 높았다. 이 지역은 2010년 조사 당

시 527종에서 지난해 337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운곡습지는 2011년 3월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09년 10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제주 1100고지는 2008년 445종에서 250종이 추가로 발견돼 56.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주 물영아리오름은 2008년 501종에서 205종이 추가로 발견돼 40.9%의 증가율을 보였다. 물영아리오름은 2000년 12월 보호지역이 됐다.

2002년 2월 보호지역이 된 경남 화엄늪은 2008년 317종에서 101종이 추가로 발견돼 31.9% 증가했다.

신안 장도산지습지는 2007년 조사에서 확인된 535종보다 적은 355종이 발견됐다. 하지만 2007년 조사 결과와 중복되는 종을 제외한 신규 생물종은 204종에 달했다. 장도산지습지는 2004년 8월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처럼 생물종이 늘어난 것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출입과 채취 등 행위가 제한되고 훼손지 복원 등 체계적으로 습지 관리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추가 발견된 생물종 가운데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다수 포함됐다.

제주 물영아리오름에서는 두점박이사슴벌레, 검독수리 등 7종(Ⅰ급 3종, Ⅱ급 4종), 제주 1100고지에서는 두점박이사슴벌레, 물장군 등 5종(Ⅰ급 1종, Ⅱ급 4종)이 발견됐다.

신안 장도산지습지에서는 물수리 1종(Ⅱ급 1종), 고창 운곡습지에서는 황새, 구렁이 등 4종(Ⅰ급 1종, Ⅱ급 3종), 경남 화엄늪에서는 새호리기 1종(Ⅱ급 1종) 등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희선 국립습지센터 연구관은 "이번 조사결과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목적인 생물 다양성 보전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으리으리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으리~

▶'오늘의 HOT뉴스'를 보고 싶으면 일단 클릭!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7215785>

인쇄하기

취소



전국 > 전북

'생태자원 활용한 생태계서비스 도입해야...' 고창 정책포럼 개최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4.10.29 19:41:25 송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생태계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고창군은 28일 동리국악당에서 민선 6기 출범 100일 기념으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의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농업, 관광,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주요 기관장 등 400여 주민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환경 분야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창환 전북대 교수는 "고창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전략, 생물다양성 향상전략, 생태계서비스 활용전략,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자연이 인간에게 돌려주는 혜택으로서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고창군이 생태계 서비스의 활용평가를 통해 숨겨진 자원의 잠재력 및 본능적 매력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환경디자인(주) 진승범 대표는 고창생태관광 발전전략을 위해 '생태관광 원칙 충실과 브랜드화 및 특화전략'을 주제로 친환경 생태관광 인증 추진, 고창만의 관광스토리 발굴,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농업분야는 전북대학교 장동헌 교수와 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도 BR(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용방안과 농업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고창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장 교수는 해외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BR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주민 주도로 추진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연구위원은 지역주민이 함께 연계하고 연대하여 계절화 및 하청화 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아가야하며 각 품목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가치 창출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화/규모화, 마케팅, 경영능력 향상 인적자원 관리, R&D 등 지원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우정 군수는 "오늘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참고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수립,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희망과 행복의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과 행정이 손잡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 > 뉴스 > 정치·사회

박우정 고창군수,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 정책포럼 개최

민선6기 출범 100일, 전문가 분석 및 토의 결과 정책수립 반영

2014년 10월 29일 (수) 14:15:07

최창윤 전문기자 ✉ choipress@newsmaker.or.kr



▲ 농업·관광·환경 분야 발전 전략 정책포럼/최창윤 기자(사진=고창군)

(호남=뉴스메이커 최창윤 기자)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28일 동리국악당에서 '농업, 관광,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 주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6기 출범 100일에 즈음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열렸다.

이날 환경 분야의 김창환 교수는 고창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전략, 생물다양성 향상전략, 생태계서비스 활용전략,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자연이 인간에게 돌려주는 혜택으로서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고창군이 생태계 서비스의 활용평가를 통해 숨겨진 자원의 잠재력 및 본능적 매력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 대표는 고창생태관광 발전전략을 위해 생태관광 원칙 충실과 브랜드화 및 특화전략, 친환경 생태관광 인증 추진, 고창만의 관광스토리 발굴,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 (사진=고창군)

농업분야는 전북대학교 장동헌 교수와 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이 BR(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 활용방안과 농업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고창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장동헌 교수는 해외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BR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주민주도로 추진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연구위원은 지역주민이 함께 연계하고 연대 계열화 및 하청화 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하며 각 품목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가치 창출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화 규모화, 마케팅, 경영능력 향상 인적자원 관리, R&D 등 지원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산면에 거주하는 장연희씨는 BR성공을 위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수립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우정 군수는 “오늘 토론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희망과 행복의 고창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라며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군을 건설하기

위해 군민과 행정의 손잡고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홈 > 뉴스 > 뉴스 > 정치·사회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생물종 증가...고창 운곡습지 64% 늘어

2014년 10월 29일 (수) 13:53:38

정상명 기자 ✉ jsm7804@enewstoday.co.kr



▲ 고창 운곡습지 경관

[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살고 있는 생물종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고창 운곡습지, 제주 물영아리오름, 제주 1100고지습지, 경남 화엄늪, 신안 장도산지습지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생물종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창 운곡습지로 864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제주 물영아리오름이 706종, 제주 1100고지가 695종, 경남 화엄늪이 418종, 신안 장도산지습지가 355종이 각각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식 종수 증가율은 고창 운곡습지가 63.9%로 가장 높았다. 이 지역은 지난 2010년 조사당시 527종에서 지난해 337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대부분의 습지에서 생물종이 101종에서 최대 337종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목적인 생물 다양성의 보전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물종이 늘어난 이유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출입과 채취 등의 행

위가 제한되고 훼손지 복원 등 체계적인 습지 관리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추가 발견된 생물종 중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제주 물영아리오름에서 두점박이사슴벌레, 검독수리 등 7종, 제주 1100고지에서 두점박이사슴벌레, 물장군 등 5종, 신안 장도산지습지에서 물수리 1종, 고창 운곡습지에서 황새, 구렁이 등 4종, 경남 화엄늪에서 새호리기 1종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희선 국립습지센터 연구관은 "이 조사를 통해 습지 생태계 변화를 세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이로부터 얻은 분야별 기초자료는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의 증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른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뉴스투데이(<http://www.ewes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웹인쇄하기](#)

☒ [창닫기](#)



지난 28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민선 6기 고창군 농업·관광·환경 분야의 발전 전략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고창 체류형 관광 콘텐츠개발 필요”

군, 전문가 초청 농업·관광·환경 발전 전략 정책포럼

고창군은 지난 28일 동리국악당에서 민선 6기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전문가를 초빙, 농업·관광·환경 분야의 발전 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의회 관계자, 사회단체,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환경 분야의 김창환 교수는 고창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전략, 생물다양성 향상전략, 생태계서비스 활용전략,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에 대한 발표에서 고창군이 생태계 서비스의 활용평가

를 통해 숨겨진 자원의 잠재력 및 본능적 매력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환경디자인㈜ 진승범 대표는 고창생태관광 발전전략을 위해 생태관광 원칙 충실과 브랜드화 및 특화전략, 친환경 생태관광 인증 추진, 고창만의 관광스토리 발굴,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는 전북대학교 장동

현 교수와 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이 BR(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용방안과 농업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고창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동현 교수는 해외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BR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주민주도로 추진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으며, 황영모 연구위원은 지역주민이 함께 연계하고 연대하여 계열화 및 하청화 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아가야하며 각 품목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가치 창출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화·규모화, 마케팅, 경영능력 향상 인적자원 관리, R&D 등 지원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

171 X 168 mm

고창군, 농업·관광·환경 발전전략 모색

고창군이 민선6기 출범 100일 즈음하여 농업, 관광, 환경분야 발전 전략 정책포럼을 28일 동리국악당에서 개최하는 등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박우정 군수, 김춘진 국회의원, 이상호 군의장,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관내 기관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주민 등 약 400여 명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김창환 교수(환경)는 고창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전략, 생물다양성 향상전략, 생태계서비스 활용전략,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특히 자연이 인간에게 돌려주는

혜택으로서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결과를 설명하면서 "고창군이 생태계 서비스의 활용평가를 통해 숨겨진 자원의 잠재력 및 본능적 매력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우정 군수는 "이번 토론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고창,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군을 건설하기 위해 군민과 행정이 손잡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l@

120 X 79 mm